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전 찬양대와 연주대가 참여 '94 찬양대연합 여름수련회 8월 15~17일, 충주 수안보 한알유스호스텔에서

우리 교회의 전 찬양대와 연주대가 함께 하는 '94 찬양대연합 여름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충주 수안보 한알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시온, 호산나, 실로암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크로마하프, 핸드벨 연주대가 모두 참여하는 매머드 수련회로 참가예상 인원은 약 600여명이다.

금번 수련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영성을 회복함으로 찬양대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찬양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일들을 바로 감당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모이는 것이다.

수련회는 영적부흥을 위한 시간과 음악적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저녁부흥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개·폐회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찬양위원회 지도인 현상민 목사가, 특강은 내·외부 강사가 담당한다. 외부강사로 김철륜 교수(연세대)가 결정되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는 원하는 경우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수련회에 참가하되 찬양대원을 위한 특강 시간을 별도로, 나머지 부흥회 시간은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배려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전 찬양대원이 함께 하는 수련회가 처음이기에 이런 연합수련회를 통해 찬양대원들이 주님께 대해 바른 마음을 갖고 더욱 영감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고 축호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도왔다. 농어촌전도대를 위해 교구내 전도회들과 전도위원회의 지원들로 풍성한 은혜가 넘친 가운데 전도활동을 마쳤다.

장년3부 여름수련회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8월 15, 16일 갈릴리홀에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중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할 일은 중국어 번역 및 문서작성, 통역 등의 업무이다. 희망자는 기획실(Tel 552-8200, 교환 430)로 연락하면 된다.

장년3부의 여름수련회가 8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6일(화) 오후 4시까지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60대 성도들의 교회학교인 장년3부는 이번 수련회에는 장년3부 지도인 정규남 목사와 김용기 목사를 강사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주제하에 모인다.

'그리스도의 편지' - 효과적인 활용법

예수사랑 큰잔치가 진행되면서 각 교구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편지를 바르게 보내고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기를 위해 그 요령을 여기에 소개한다.

1.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을 태신자 명단 작성

이번 초청은 타교인을 당일만 참석케 하는 등 숫자 채우기식의 초청을 지양하고, 양육을 전제한 초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접촉점 편지를 통해 접근하여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도하며 확정한다.

2. 매일 기도 시간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성령님의 감동없이 단순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가 어렵다.

3. 그리스도의 편지의 관리 및 배포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의 봉사분과에서 관리 및 배포하게 된다. 봉사분과에서는 봉당 로비에 12종의 씨앗편지(불신자용)를 세트와 날개로 각각 준비하였다. 1신부터 보낼 사람은 세트에 포장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중간에 보낼 사람은 날개 중 필요한 것을 골라서 발송하면 된다.

4. 그리스도의 편지 발송

기도하며 작성한 태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한다. 성도들은 자신의 태신자들에게 보낼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

성하여(주소, 성명, 간단한 안부와 권면 등을 기록) 우표를 부착, 주일날까지 교구별로 제출한다. 교구에서는 교구내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를 수집하여 교구모임시 교구담당 목사의 기도 후 다음 월요일 교구별로 발송한다.

5.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

7월 10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에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12신의 편지 중 적당한 것을 골라 보내며, 초청편지(13신과 14신)는 함께 보낼 수 있게 조절한다. 이때는 필히 발송카드를 작성하여 중복이나 빠짐이 없도록 체크한다.

6. 7월 10일 일제히 발송 시작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9월 25일에 제 12신을 보내게 된다

12신을 모두 받은 수신자에게 10월 2일 제 13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발송한다. 10월 9일 초청을 확인하며 제 14신에 해당하는 초청편지를 다시 한번 발송하고, 10월 10~15일 사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초청을 권면한다.

7. 그리스도의 편지의 종류

- 불신자용 씨앗편지 종류
- 유치부용(6신) · 유년부용(6신) · 초등부용(6신) · 중등부용(7신) · 고등부용(7신) · 대학부용(10신) · 청년부용(12신) · 장년부용(12신) · 주부용(12신) · 소망부용(12신)

그 외에 장기결석자용으로 유치부와 유년부용으로 각 4신씩 새순편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장년부를 위해서는 낙심자용(12신)과 환우용(6신)이 있다.

제4교구 농어촌전도대 강원 북쌍교회 다녀와



지난 8월 1일(월)~5일(목)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영월군 북쌍리의 북쌍교회를 파송되었던 제4교구 농어촌전도대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안금자 집사의 10명과 어린이 5명의 전도대는 100여 가구의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52명의 결신자를 얻었

◀ 제4교구 농어촌전도대가 북쌍교회에서 실시한 여름성경학교

도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5월 8일~9월 25일까지

도서장학회에서는 지난 5월 첫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수집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우리 교회 도서관에 희귀본의 책을 수집하는 일과 군부대와 경찰서 또는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보낼 계획을 하고 도서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하는 도서는 각 개인의 가정에서 보던 책으로써 신앙서적, 문학전집류, 전문도서 등 각종 책을

포함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미 보고 난 책을 가져오면 되는데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도서장학회에서는 수집된 도서 중 도서관에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기타 책은 각 기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우리 교회 도서관은 양서와 동서 합쳐서 약 17,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1. 형제의 조건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되는 일반적인 조건 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출생조건이 같으면 형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위급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 17:17). 넷째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시 133:1). 다섯째는 서로 우애할 때에 이들이 바로 형제라고 했습니다 (벧후 1:7).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른 측면에서 형제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형제이고 둘째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셋째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형편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환난이 끊이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여행자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형제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음은 성도들의 특징이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2. 왜 요한은 밧모섬에 있었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있다고 했습니다.

밧모섬은 오늘날 약 2,500명 정도의 섬 주민이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으로 나무들은 별로 없고 돌들이 많이 있어서 채석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1088년에 설립된 요한수도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강제로 이곳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서 종말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구름이 가리워지지 않는 한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은 밤에 밝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역경에 처해있고 고달픈 그때에 바로 진리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3. 시기적으로 주의 날에 일어난 사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이 주인인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오락행위나 사사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번거롭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4.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첫째로 밧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

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옷은 그 후에 제사장이나 성가대원의 옷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입던 옷은 수고의 땀에 젖은 옷이었고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옷은 수치의 홍포였으나 재림 때에는 밧에 끌리는 영광스런 옷을 입고 오십니다. 둘째로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가슴에 금띠 띠는 것은 왕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중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충현강단



사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

(계 1:9 - 20)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우리는 생활이나 생각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주권(Lordship)을 우리의 생활속에서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그 머리와 털의 회기가 흰 양털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순결함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털이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이 희다고 하는 것은 존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많은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찰력,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보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 형편까지 아주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꽃같은 눈이라는 것은 격렬한 진노를 뜻합니다. 이 눈은 죄악을 보실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다섯째로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의 발은 못박히신 발이었으나 재림하실 때에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오십니다. 풀무에 단련한 주석은 절그릇이나 도자기나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발입니다. 예수님

은 심판주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예언자임을 말씀하며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파도소리처럼, 어떤 때는 졸졸 흐르는 개울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꾸짖으시는 음성으로, 때로는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나타나시는 예언자가 되십니다. 일곱째로 주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른쪽이란 존귀함을 나타내며 또한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셨습니다.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대표가 되는 주의 종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좁은 의미로는

그 당시 일곱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덟째로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식카라는 칼날이 양쪽에 있는 아주 무서운 칼을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바로 그 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아홉째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취는 밝은 태양과 같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탁월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5. 산 자이신 예수님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18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원문에 보면 존(jwn)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주님, 곧 자기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비하를 보여줍니다. 또 그 다음에 “불찌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는 존귀해지신, 높아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없이 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사명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허락없이 안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단순히 이 열쇠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 교회의 성장과 멸망의 열쇠 모든 열쇠가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광스런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참음으로 팔미암아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강습을 받고서 ▶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
언제 어떤 목적에 의해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까다로운 부담감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낯선 얼굴들과의 만남이 쏙스럽지 않고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 윤 복

(청년2부 어린이반 교사)

우리 청년2부의 어린이반은 조금 특별한 모임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 조직이 아니고 30대 부모들의 성경공부 시간에 그 자녀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저 말썽없이 데리고 있어 주는 정도로 생각하여 성경, 찬송없이 오는 어린이가 많다. 그리고는 탁아의 성격이 있으므로 얼마전부터는 행정적으로 탁아부와 관련을 갖게 됐다.

2년전에 처음 어린이반에 오게 될 때에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신 김형선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색칠공부나 그리기가 아닌 좀더 성경적인 활동으로 교회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전적으로 동감하여서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갖고 말씀내용과 연결된 특별활동시간을 갖는다.

평소에는 한 시간반 동안이라 특활시간이 짧고 조그만 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자주 강조하여 성경, 찬송을 갖고 들어오는 어린이도 많아졌다 (이것은 필수이니 읽으시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수련회 기간이다. 이때는 탁아부와도 관계없이 한다.

어린이들의 성경학교는 반사들도 많고 행정교사들도 많지만 우리 어린이반은 첫머리부터 국교 6년생까지 다 모이므로 교육의 기준이나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데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들을 3-4시간 동안 세 교사가 다 돌보아야 한다. 그래도 늘 기쁨으로 아기들 우유를 먹이고, 업어주고, 간식 챙겨주고, 늦은 밤에 돌아가야 하므로 사용한 교실에 쓰레기 남길까봐 중간중간 청소해가며 두 분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다.

그런데도 앞에 서는 나는 늘 전체적인 진행을 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주일 교회 시간에 부장 장로님께서 레크리에이션 강습회가 있는데 부서별로 2명씩이라고 광고하셨다. 평소에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으므로 얼른 자원하여 신청하였다.

이론과 실기가 함께 진행되는

동안 너무 재미있었다. 간단한 이론 공부 후에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나면 몇가지 프로그램이 서로 엮여져서 진행된 것을 알게 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따라 했는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고 왔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마음에 새겼다.

목소리가 큰 편인 나는 조금 봉사하면서 요구가 많은가 싶어서 마이크 얘기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에 배우면서 확실하게 마이크를 사용하여 더 잘 집중시킬 수 있었고, 긴 풍선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어 상으로, 기념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참으로 즐거워했다.

무엇보다도 시작할 때에 부모님들과 같은 제목으로 간단히 예배를 드린 후에 배운대로 팀을 조직하는 일에 시간을 끌더라도 확실하게 팀워크를 다진 것이 다음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자기 소개서를 써서 서로 교환하여 사인 받고 빙고 게임식으로 연결하여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법, 오랫동안 추어 본 포크댄스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 언제 어떤 목적에 의해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까다로운 부담감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낯선 얼굴들과의 만남이 쏙스럽지 않고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또 우리 기독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은 그냥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성경적인 해석과 합당한 것들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더 잘 고려하여 진행하느라 애를 썼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재미있게 수련회를 마쳤다. 이 강습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수고하신 강사님들께 감사 드린다. 함께 참여하신 교사님들께 서는 받은 무진한 선물을 잘 활용하여 더 좋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써의 자기 개발에 힘쓰기를 서로 다짐하며 인사를 마친다.

을

해로 일본제국주의의 광기어린 침략으로 36년간의 긴 노예생활에서 해방된지 49년이 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역사를 통하여 일본의 만행을 배웠을 뿐이겠지만, 옛 세대분들에게는 조국에서는 배고픔, 고통, 부자유로, 이국에서는 통곡과 가슴 졸임으로 회복을 꿈꾸며 싸우면서 피와 땀으로 얼룩지워진 세월이었다. 특히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교회를 지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을 기다린 세월이었다. 우리에게도 감옥에서의 온갖 고문과 추위, 배고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또한 우리는 제암리 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행하여진 야만적이고도 광기에 가득찬 박해와 한국 교회에 가하여진 유형 무형의 많은 핍박들을 기억한다. 광복 후에도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교회에 대한 핍박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분들이 남하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케 하신 것을 또한 알고 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땅은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



광복절에 생각해 본다

최 성 현

(장로 대학부 부장)

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왔다. 선교사들을 통한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의 봉사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미쳤음을 익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현재의 기독교는 일제 치하에서의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지켜들었던 것과 같은 사명을 과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최근에는 국영방송인 KBS에서조차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명분아래 우상숭배를 미화하는 실정이 아닌가? 기독교는 과연 이 세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답해야만 하며 이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 청년이 감당해야만 할 일이다. 정치, 경제, 문화, 도덕과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어두운 이 세대에 영적인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이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한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질 자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 1994년 광복절에

물맷돌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미가 5:9)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여자에게 한 질문이다. 도대체 내가 찾는 그분은 어떤 점이 그리 대단하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법하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우상,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는 질문 말이다.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 보았다. ‘예수님 믿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 대답해 보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 그리고는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이야 — 그분은 — 그 이상의 진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특별히 부탁할게 있을 때나 쪼르르 찾아가서 주여 주여 할뿐 그분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등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8)는 고백을 한번쯤은 실감나게 해야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절이 생각난다. “...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토막소식

- ◆ 초등2부는 8월 14일(오늘) 모든 교사가 1부 예배에 참석한 후 초등2부 예배와 분반공부를 한 후 충현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로 모인다.
- ◆ 초등5부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느낀 점, 체험담, 기도문 등의 글을 수집하고 있다.
- ◆ 초등6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장기결석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 고등부는 지난 8월 12-13일 각 소그룹들이 MT를 다녀왔다. 찬양대도 충현기도원에서 1박 2일간 찬양대 수련회를 가졌다.
- ◆ 대학부는 94 대학부 학년제를 9월 17

- 일(토) 나사렛홀에서 갖기로 했다. 금년도 주관은 2학년이다.
- ◆ 청년1부는 8월 15일 야외예배를 설악산으로 간다.
- ◆ 청년2부는 지난 하기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사람들이 수련회 테이프를 구입하여 들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 ◆ 사랑부는 지난 주일 5, 6, 7월에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환영회를 교사실에서 가졌다.
- ◆ 소망부는 오는 8월 18일(목) - 19일(금)에 충현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찬근, 조동원 목사님과 김정순 전도사이다.
- ◆ 새가족 양육부는 오는 8월 29일(월) - 30일(화)에 양육위원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 지원 교회를 다녀와서 ◆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산골짜기 구석구석 까지에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최영옥
(집사, 루디아 여전교회)

제21교구 루디아 여전교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강원도에 있는 지원 교회에 다녀왔다.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참으로 들뜬 마음으로 10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강원도 새말에서 해발 500미터나 되는 전재고개를 굽어굽이 돌아 내려가니 긴 다리가 보이고 그 다리를 건너 안흥면쪽으로 한참을 가니 비포장 도로를 6Km나 가야했다. 먼지가 나고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하여 훨씬 더 멀게 느껴졌다. 드디어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부곡교회가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슴 뽕뽕하고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교인이라야 어른이 15명 아이들까지 합쳐 40명 밖에 되지 않는 농촌교회에서 집사자를 높이 올리고 붉은 벽돌로 잘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해 한다.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 사택으로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손수 장만하신 것이다. 고사리, 취나물은 권사님이 직접 뜯어오신 것이란다. 교회짓는데 건축헌금을 하시기 위해 산나물을 뜯어다 팔아가고 100만원이란 돈을 현금하셨다하니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가.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고추랑 오이, 들에서 뜯은 고들빼기 잎사귀, 오이냉국 등 진수성찬이었다.

오후 1시에 도착한 우리는 여짜나 배가 고프지 사장(?)이란 반찬까지 나물에 비벼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리고 교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방울 토마토를 한 소쿠리 내놓으셨다. 너무 맛이 있어서 둘러앉아 먹으며 목사님 내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골짜기 구석구석 까지에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교회 짓는데 6천만원이 소요됐고 아직도 빛이 있어 붕고차도 팔아버려 멀레 있는 교인들은 그때 교회로 못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때문에 많은 순수한 마음, 계산되지 않은 깨끗한 예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빈자리가 있으니까. "용서천 목사님 힘내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착잡한 마음과 아쉬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발길을 돌렸다. 오는 길에 개울가를 지나오며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고 깔깔거리며 잠깐 동안이지만 서로 친목을 다졌고 돌아오는 마음은 파뽕기만 하다.

주예! 이 무더운 여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해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작은 열매 맺되게 하소서. 아멘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임 목사 : 15(월) 찬양위원회 하기수련회 부흥회 설교
 - 17(수) 경찰교회 예배설교(서울지방경찰청)
 - 신성중 목사 : 16(화) 찬양위원회 하기수련회 부흥회 설교
 -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님위해 충성케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죄악을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4.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심령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5. 대통령에게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국정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손명순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6. 제2교육관공사와 길림성 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으로 붙들여 주시옵소서.

정경다비



방문시 첫기도

한용관
(목사, 초등6부, 제15교구 지도)

우리는 이웃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 혹은 교회 기관을 방문할 때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또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축스럼게 기도하는 척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다면 꼭 실천합시다. 바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의 가정이나 어떤 처소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첫째 평강을 빌어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의 근거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방문한 가정이나 교회 혹은 처소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평안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나 처소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방문한 그곳에도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집이든 불신자의 집이든 상관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빌어드린 축복이 그 가정이나 처소에 어떻게 전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누가복음 10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둘째 방문의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왜 이곳을 방문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만나게 될 사람과의 교제, 대화, 상담 등 모든 내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지고 꾸짖지 아니하시게 하옵소서" (약 1:15)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혜와 담력을 주십니다.

이 첫기도는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라면 그 어떤 곳을 방문했든지 간에 먼저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축스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뼈저리게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 100%를 그리스도인으로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기도를 통하여 당신은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